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상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총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1:18)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3:12)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원 편집국장: 조순진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제3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8일에 최종 마감·본교회 성도들 많은 참여 기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제3회 전국찬양대 지도자강습회가 이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회음악의 본래적 기능을 살려 찬양대의 노래를 사람을 향한 연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강습회를 통해서 그동안 전국 각지의 교회들로부터 참석한 많은 수강생들은 큰 유익과 기쁨을 얻어왔다.

사실 찬양대의 생명은 탄탄한 실력뿐 아니라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성이 넘치는 찬양이고 그 중 많은 부분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지휘자와 반주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지휘자와 반주자, 혹은 지휘와 반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금번 강습회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찬양위원회에서는 본 교회 교회학교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들은 금번 강습회에 참가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보다 나은 예배 사회를 위해 찬양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교역자들 중 원하는 이들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찬양위원회에서는 총회의 모든 성도들이 금번 강습회 강령의 인도와 감동하심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도 지원할 뿐 아니라, 다 교회 지휘 반주자들이나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이 강습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대사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2차 전국 목회자 세미나

당신의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조하라!

8월 23-25일

성도들의 적극적인 홍보 기대

제2차 전국목회자세미나가 이제 석 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교회 강단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섬기고자 시작한 전국목회자세미나는 특히 윤행하는 목회 프로그램들이 교회의 진정한 영적 성장에 대하여 역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말씀으로 돌아가기 운동’의 일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실을 두루 알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기대한다. 세미나 관련 몇 가지 기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대 상: 전국의 목회자(부교역자 포함)
강 사: 리처드 프래트(미국 리폼드신학교 구약교수: 구약의 복음적 설교)
리처드 크레이븐(미국 웨스턴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당신의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조하라)
* 주제별 7회씩 총 14회의 강의로 진행.
참가비: 3만원(부교역자 대동시 함께 오신 분은 2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국으로 문의.

농어촌전도대

금주엔 2, 5, 8, 11교구, 청년1부
대학부는 교구 사역 지원키로

하기 농어촌 낙도전도대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주엔 고등부와 청년1부, 그리고 몇 개의 교구와 대학부 지체들이 농어촌 낙도 전도사역을 다녀왔고, 금주에는 2교구가 강원도 평창으로(마산교회), 5교구가 충북 청원으로(세종양교회), 8교구가 충남 연기로(전동교회), 11교구가 강원도 영월로(복음교회) 각각 농어촌 봉사를 통한 전도사역을 감당하고 대학부는 본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각 교구와 협력 사역을 감당키로 하였다. 그리고 청년1부는 지난 주에 이어 금주에도 경남 통영(용초교회, 곤리교회)과 거제(방화교회) 등으로 낙도사역을 떠난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경주에서 안전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에서 주민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끊이지 않는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여름계절학교

고등부, 임마누엘찬양대, 핸드벨과이어

이제 교회학교의 여름 계절학교가 이번 주에 실시되는 고등부 수련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고등부는 8월2일부터 5일까지 충원기도원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진다(강사: 조문찬 목사, 조제민 전도사). 그리고 찬양대 여름수련회는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며 8월 5-7일에는 임마누엘찬양대(주제: 주를 찬송함)이 내 일에 가득하리이다. 강사: 김병태 목사)가, 그리고 8월 6-7일에는 핸드벨과이어(주제: 새롭게 태어나자, 강사: 조문찬 목사, 송재현 선생)가 각각 수련회를 갖는다. 모든 수련회가 진정한 의미의 영적 수련을 위해, 안전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국내외국인선교부 제3회 여름수련회 실시 중

주 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요 6:35)
기 간: 8월 1일(오늘)-3일(화)
장 소: 아펜솔
강 사: 김민식 목사
특 강: 이슬수 목사, 김영태 선교사
* 여름수련회 일정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휴가 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기 중

8교구의 이복연 집사, 강효길 성도는 단기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 대학노트 2원권을 기증키로 하고, 발광라테스 단기선교단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봉공방: 봉천동 봉공방 여름성경학교 열어

봉천동의 극빈가정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오던 대학부의 소그룹 봉공방이 지난 7월 27-28일 양일에 걸쳐 교육관 2층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15명의 초등학생과 7명의 중학생이 참석한 성경학교를 통해서 봉공방 지체들은 성경공부와 예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진정한 꿈을 가르쳐 주었다.



△ 봉천동 성경공부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당회원 근신키로

당회원들은 지난 주일 찬양예배 후 가진 임시당회를 통해서도 문성중 군 사고사(주간충원 7월 25일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원 근신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당회원은 8월 한달 동안 공집회의 기도 순서에서 빠진다.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가 계속되고 있다. 각 지회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아래의 사항에 따라 감사를 받으신다.

기 간: 8월 15일까지
시 간: 매주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 소: 선교관 4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시산표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예금통장, 영수증

도서장학회

후반기 장학금 신청 다음주 마감

후반기 장학금 신청이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해당자들은 교육국으로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 창 인 목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복종하자

(이사야 45:9-13)

“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들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었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었느뇨...”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관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때에 여러 가치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로, 진실한 종들을 쓰시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셨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기 위하여는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 다. 둘째로, 나귀와 같은 짐승을 사용하십 니다. 발람이 돈과 권세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귀를 사용하셨습 니다(민 22장). 셋째로, 미워하는 원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도 하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아 넘겼습니 다. 이것은 요셉을 남파러지기로 했으리라 죽이는 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 드시는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 보디 발의 아내가 죄를 범하자고 유혹하다가 되지 않으니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남편 을 속여사까지 요셉을 감옥에 넣어 넣 었습니 다. 감옥의 바다에 핑계처진 요 셉은 거기서 이름없는 죄수로 죽으면 장례식도 못하고 없어질 줄 알았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보다 여 금 요셉을 시기하게 만들고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요셉을 감옥에 넣어 처 여 성공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 다. 형 들이 요셉을 팔아 먹지 않았고 보디발 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 으면 요셉은 애굽의 국부총리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원수를 통하여 복받은 길을 열어 주시 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방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손해로 끝나는 법이 없고 모든 것이 합 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신자 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낙 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불 드시 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원망을 하였습니 다. “하필 하나님도 성경도 모 르는 야방의 고래스 왕을 통하여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바로 왕에게 모 세를 보내주시어 유다 민족 가운데서 후 들한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쳐 부수 고 우리를 고국에 돌려 보내어 성전을 짓게 하였으면 더 좋을 것이 아닙니까? 어찌서 믿지 아니하는 야방인 고래스를 세우셨습니까? 모세와 같은 인물을 세 워 주어야지요.” 이러면서 항의의 소리 다.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면 유다 민족 의 원망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회개 하지 못한 사람이 끝을 되던 감사를 할 줄은 모르고 원망만 하는 것처럼 유 다 민족에 들어오는 유다 민족이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망을 하였 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백성은

복을 받아도 감사가 없으므로 원망하 다 가 다시 망하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백 성은 애당초 죄를 범한 것이 나쁘고 죄 같으므로 망하기 전에 복을 주었더니 감 사는 하지 않고 계속 망할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데도 도리어 원망하면서 배운망덕을 해 서야 되겠습니까.

이리하여 하나님은 “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들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 뇨 할 수 있었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었느뇨” (9절)라고 탄탄하신 것입니다. 성한 절 그릇도 값이저 적든대 깨진 절그릇 조각이 무슨 값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유다 민족이 어찌서 이렇게가 지 타락하였습니까? 죄값이 무릅쓰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몰랐습니 다. 때한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불명하지 말고 복종해야 합니다.

1. 독재와 주권은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독재를 하는 정치자들이 종 종 나타나는데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정 치자가 독재를 합니다. 누구나 억울함 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놓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독재를 하는 법이 없 습니 다. 불공평한 곳에서 독재가 짝이 됩니 다. 또한 육체에 눈이 어두운 정치 가가 독재를 합니다. 정권을 연장시키 러거나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육체에 눈이 어두운 자가 독재를 합니다. 그런 데 독재는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독재가 아닙니다. 그 러므로 하나님에 평행하신 신자는 순 종만 해야 한다는 것은 독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원수까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의 정치는 공의로워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절대 적이어서 반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 님의 정치는 신실하여 한 번 약속한 것 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영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독재와 다릅니다.

2.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감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믿음대로 갔는데도 바벨론 에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도 그들을 “왜 우리를 하 게 하였습니까?”라며 항의할 수 없습

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려고 고래스 왕을 보내어 주셨습니 다. 그 결과로 유 다 민족이 해방을 얻어 예루살렘에 돌아 와 성전을 짓게 되었으면 첫째로, 하나 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민 족 중에는 고래스 왕과 같은 왕이 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 다”라고 부끄러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다 민족이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기가 막 혀 책망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유다 민족아, 내가 다시 말할테니 이제라도 들어오도, 그러면 내가 복을 주마” 하시 며 몇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1) 하나님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일을 계 획해야 합니다.

“... 장래 일을 내게 몰라...” (11절) “너희가 장래를 계획하려면 내게 결 제를 받을 수 있는 일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채울 목적이 나 기본나는 대로 함부로 장래 일을 계 획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님을 하여도 ‘하 나님이 이것을 웃다가 칭찬하시겠다’를 생각하고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2) 자기를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해 야 합니다.

“...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가 부끄러워” (11절)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도 쌓아야 하는데 너희의 힘만으 로는 안된다. 나에게 의지하여 부끄러움 이요 하여라, 너희 자신의 힘만 가지고 함부로 일에 손을 대지 말고 또는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손을 대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3) 야방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일을 해 야 합니다.

과거는 못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 나 와 의논하면서 일을 하자 라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주권 행사 앞에 복종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1) 하나님에 의지해 주십시오.

“내가 의로 이끌어 오긴다...” (13절) 우리가 망하여 천대를 받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으켜 주시니까 감 옥의 죄수가 하루 아침에 국부총리가 되었습니 다.

(2) 하나님에 의지할 줄을 열어 주십시오

“... 그 모든 길을 끝내 하리니...” (13절) 성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 하나님에 성음을 쌓게 하여 주십시오
“... 그가 나의 성음을 건축할 것이며...” (13절)

성음을 쌓을 것이라는 말은 승리와 평 안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성음을 쌓았으 니 감히 누가 쳐들어 오겠습니까? 자유 와 평안을 누리게 승리의 생활입니다.

(4) 하나님이 값없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시 니다

“... 나의 사토잡힌 자들을 값이나 값 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 이니라 하겠느니라” (13절)

영드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앞 길을 열어 주시고 성을 쌓게 하여 주시 고, 값없이 영구에 필요한 것을 주셨다 고 약속하십니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 를 주시고 권리와 명예와 재산을 주시 로 약속하십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 앞에 감사하고 머리를 숙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을 할 때에 혼자 담비지 말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을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 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이 이루어 질 때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님이 약속하셨다면 ‘왜’ 당장 주시지 않 습니까? 이리저리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 이 13년 동안을 인내하면서 충성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받았 어도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 로써 충성해야 복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요셉은 1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고 3년 동안 감옥 생 활이 있었는 다음에 국부총리가 되었습니 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머 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10여년 동안의 고생을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으면 더 당 강하게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 는 다음에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의 그릇 준비를 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러므로 인내와 충성으로 마음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 앞에 머 리를 숙고 고통에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죄스 왕을 통하여 주신 구원이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원망을 하겠 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원망이 없고, 회 개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아도 원망 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 고 살다가 원망장이 죽어야 합니다. 감 사하면서 살다가 감사하면서 하늘나라 로 올라가야 합니다.



김성관 목사

부흥 (시편 85:6)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진정한 부흥은

부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흥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부흥이라는 말을 연합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거창한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 한 데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함께 모여 있음으로 어떤 집단적인 행동 속에서 활기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을 가진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부흥은 지금까지의 삶을 뛰어넘어 회복된 삶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의 삶에 있는 온종일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지심으로 그들을 불일듯 일으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따라서 부흥은 사람들의 운동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자기의 교회를 영적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성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부흥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시 85:6).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흥은 기도를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역사들을 위해서 보면 그 시작에는 항상 무릎을 꿇는 누군가가 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별기를 다하며 모든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대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1).

부흥에는 기대가 있어야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일으

키실 부흥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부흥들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요한 웨슬리와 영국의 부흥,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미국의 부흥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부흥을 추억하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 ‘기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서 내다보고 찾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부흥의 창조는 바로 일으키는 은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이 기도는 하지 않는 데 그릇된 방법으로 부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파시릴 만한 거

역업에서 해방되어 섬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은 세례를 받았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 주면서 성에서 떠나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실 때, 행복은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길은 내면에 타오르는 진정한 빛이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질 밤이 오기 전, 이 낮 시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회복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었지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육적

야곱을 벨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비록 부서지고 상처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이야말로 부흥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각자는 홀로 서 있으면 안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에 십자가 위에서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사랑을 나누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힘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부흥을 열망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4).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자가, 모든 것이 진동합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 나뉘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불평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겁한 모습입니다. 부흥을 열망합니다. 함께 거룩한 성소에 섬깁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름을 너희는 거사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교” (느 8:10).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율법을 범한 죄로 인해 슬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라고 하십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수님께 집중해야

우리는 IMF와 Y2K 문제, 그밖에 수다한 사회, 정치, 종교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좌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온전히 회복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됨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를 부르십시오! 아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창한 연합집회 같은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바꾸실 뜻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십니다.

부흥은 기쁨으로 나타나

기도를 후에는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나아갑니다. 부흥과 기쁨이 없는 삶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흥은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을 창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수들의 심령은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육문은 열리고 죄수들의 쇠고랑은 풀렸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으로 또 영적으로 새 생명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나팔소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 나아가기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상의 관점에서 돌리켜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의 벨렐로 올라갑시다

과거에 있었던 부흥의 복길은 거의 지나갔지만, 이제 다시 또 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헌신하는 심령과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지나가면 불씨는 사그라지고 불꽃도 타올라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답을절을 잘하면 누가 너희를 막아 전리를 손놓지 않게 하리나” (겔 5:7). 성도 여러분, 일어나 벨렐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1999 여름 단기선교 소식

몽골
먼저 그곳에 가 재밌다

노경화(대학부 5학년)

몽골 단기선교(7/13-27)를 떠난 후 14일만에 서울에서 맞이하는 수요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생활에서 해방시켜 애굽살렘으로 귀환시킨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 126편을 묵상하는데 지난 14일 동안 우리가 밟았고 만났던 몽골 땅과 그 영혼들이 떠올랐다.

몽골이 복음에 착박한 땅인 줄로만 알았으나 성령님의 인도로 둘째날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찬양사역, 노방전도가 이루어졌던 아르바 지역의 아리온 무르(거룩한 발자취)교회와 함께 방문하고 그 교회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몽골 땅 가운데로 믿음의 거룩한 씨앗들을 뿌리고 기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추천교회로 출석하고 있는 38명의 몽골인 성도 가족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에 전체적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달했다. 그대에 하나님께는 은혜를 배우셔서, 라마고 소렐렀던 한 할아버지가 참 진리이시고 구원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같은 기쁨을 누리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

또한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는 의료사역의 통역자와의 만남이었다. 우리와 2주 동안 함께 일한 통역자들이 처음에는 단지 통역자로서만 일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이었으나 그들 중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기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몽골을 떠나오기 며칠 전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도 전도해 보세요'라고 말했던 그때의 가슴 두근거림은 잊을 수 없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를 위해 몇몇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역해할 수 없었다.

지난 2주 동안의 몽골 단기사역 중 깨달은 것은 참으로 몽골을 사랑하는 하나님, 몽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또 연합하고 실패 많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는 것이었다.

몽골을 떠날 때가 되던 조그마한 수침을 돌쳐본다. 하얀 백지였던 수침에 땅을 그려놓은 것 같은 핏색 아래 노방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만났던 몽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만남을 적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웃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만가해 해주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의 눈물의 씨를 뿌리는 이 일이 계속되어져 가길 소망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몽골 전하는 선교대의 밑에 집중하는 몽골 어린이들.

스리랑카
기쁨이 중한게 하려 할아이라

김석진(선교연구원 LMTC 훈련생)

우리는 처음부터 주께서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13일-23일(9박10일) 모든 일정이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었고 그분의 계획 아래 인도되었다. 스리랑카로 떠나기 전 실시했던 2박3일의 국내정탐훈련을 통해 습득한 사전 지식을 실용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

경유지인 싱가포르에서도 비행기 내기 시간을 이용해서 시내에서 3시간의 리처치 훈련을 했다. 우리는 마침내 스리랑카 땅에 도착했고, 그 순간부터 LMTC 과정에서 익힌 LAMP 심습부터 시작했다. 우리의 훈련은 언어 습득, 타문화 적응 및 정탐, 복음 전도 훈련 등으로 이어졌다. 팀 전체 숙소에서, 팀별 및 가정에서 현지인들과 만나는 개개인 영혼들은 신로 주님께서 사전에 보내주시고 예비해 두신 자들이었다. 가는 곳마다 우리들 자신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기다리는 영혼들간에 파이프 라인임을 목도하였다.

우리를 지도하신 목사님과 모성애 같은 사랑으로 보살피신 장로님, 섬기기는 최의의 온사를 지닌 지도자님, 감사와 기쁨으로 된 사역을 충실하게 마친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선교연구원 LMTC 과정의 일환으로 스리랑카에서 실시된 이번 해외선교훈련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확인하고 숙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더구나 현지인들과 복음 안에서 맺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방글라데시 이곳 역시 무슬림, 그러나 ...

저희들은 3개팀으로 나누어서 현지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웃 사람들의 삶과 복음에 대해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 거처의 영에 붙잡힌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도로부터 무슬림 신앙을 전수받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두드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국내외국인 선교부에 나갔던 현지인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호의적인 태도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통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외국으로 신앙을 선언하면 곧바로 가족들로부터 추방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익명의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현지인의 도움으로 다카(수도)에서 약 4시간 떨어진 사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외롭게 사역하는 시골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현지인의 도움으로 현지인 사역자가 사역하는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크리스천들은 무슬림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그들만이 교회를 중심으로 작은 온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지만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온락

파키스탄 단기선교를 떠나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은 전 인구의 약 1.7%로 힌두교 배경을 가진 하카카스트인 편잡인이 대다수이고 그들은 다수인 회교도로부터 멸시와 압박을 당합니다. 이 나라는 선교사 신분으로 비자를 내어 주는 유일한 이슬람국가입니다. 그 내면에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위가 파키스탄에 있는 170개의 종족들 모두를 보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창조의 섭리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남 만한 현지인을 붙여 주시길 원합니다.

술취하듯 뒤로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정도 해보고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며 나가지만, 정말 진짜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결연한 정보와 저와 사역팀원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합당하게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저희 단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저희 단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열심같이 되어서, 믿음의 도전이 동행한 연합된 기도들의 몸이 되도록
- 사단의 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흑이더로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틈타지 않고 깨어 있도록

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저희들의 작은 경성들을 나누었을 때 그들이 큰 위로를 받은 것을 보고 참으로 오묘이기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것이 외롭게 신앙을 지키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신앙공동체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침울하고 우울하게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들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추천교회 대학부 출신인 김은미 자매(우리 교회 단기선교사)가 아주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빈부 격차가 극심한 곳입니다. 약 5%의 소수자들의 모든 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현지인의 우연한 소개로 이곳의 초대 국회의

장을 지낸 분의 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정제되어 유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의 가족이 모이는 파티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듣던 5%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온다면 그의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가정에서 머물면서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사하여 선교의 좋은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였습니다.

△ 사역리를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정년 / 소망

정년부

돌아온 탕자의 다짐

안정선
(장년1부 교사)

정년2부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은”

민병인
(집사, 장년2부 교사)

소망부

뜻깊은 변화절

박경조
(소망부 7남, 12교구)

이미 예정된 7월 16, 17일, 16일 아침 9시 30분 출발 예정을 앞두고 나나 자신의 분주한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하루를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세상 것들에 얽매어 같은 반 집사님께 전화를 했다. “집사님, 나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요.” 그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으로 향했다.

수련회의 순서순서마다 참석할 때 왜 나를 낚시장에 보내 주셨는지 깊이 깨달았다. 성적이 시작되었다. 나의 역할을 돌아온 탕자였다. 나 자신 탐지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멋지게 해냈다.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기를 느끼면서 말았다. 탕자와 같은 나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놀라움은 없었다.

또한 시간간절히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속해 있던 나 자신을 깊이 발견했다. 늘 세상에 쫓기고 쫓기면서 나 날이 분주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달려 왔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서 주의 일을 하라”는 세미한 음성들을 들려 주셨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저하였으나 때가 임박했다는 말씀에 땅에 것에 주목하던 것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요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 자신 말자처럼 따라 주의 일을 하리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러 주님의 길을 가리라 다짐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단연 손꼽히는 여름수련회! 우리 장년2부는 제21회 여름수련회를 맞아 신앙운동을 다짐하며 많은 기대와 사랑을 안고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지도와 함께 합동신학대학원으로 출발하였다. 공기 맑고 쾌적한 그곳은 수련회를 위한 최적지이다. 해마다 가지만 회당과 화회, 그리고 그 무의의 추구와 갈망 등이 달리는 심령들 가슴 속에 가득 가득 꽂혔다. 특히 전날 밤에 내리던 비는 멈추고 맑게 개인 하늘은 정말로 감사했다.

아름답게 시작된 개회예배, 격절하게 배제한 속소배정, 끝맛 같은 점심식사. 우리들은 오손도손 즐거워했다. 윤영탁 목사님과 모든 준비하시든 분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수련회는 그야말로 부들부들하게 진행되었다.

두 번의 강의와 한 번의 부흥회를 통해서 정장신 목사님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과 생명의 있는 구원이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연속적으로 강하게 주셨다.

둘째날 새벽 우리는 신신하고 아름다운 야외예배장에서 맑은 새 소리와 새벽공기를 가르며 부르는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윤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후손들에게 남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본받아 가자는 말씀으로 우리들 에게 도전해 주셨다.

이제 해마다 많은 남지회원들이 참석하여 은혜가 넘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육신은 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소망하면서, 남 모르게 수고한 모든 준비자들과 주방봉사자 등에 대한 감사와 수련회로 인한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



하루 세 끼 식사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떡으로 빛은 별식을 맞이한 7월 8, 9일 양일간 변화절을 뜻깊게 지내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또 노인들을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 장로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다.

수련회 첫날부터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전해진 말씀이 내 심령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층 더하였다. 오후 시간에는 성도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찬송을 불렀는데 노인들이 주름진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지난 수년간 수련회에 참여지 못했으니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나에게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하여 주신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호와께서 선악을 세우리라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파한 이스라엘을 통해(렐 31:31-33) 마음 속의 낡은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젊은 청춘을 허송세월 했을지라도 이제라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녹은 심령을 새로 청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마포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수련회 마지막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끝으로 찬송을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열심히 부르는 모습들이 성령의 역사로 열렬했던 오순절 마르의 다락방을 연상케 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 소망부 회원들은 언제 어느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실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수련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느껴진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들리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속에 소금 녹듯 녹아내렸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주고 주님의 빛을 전해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권사회 24시간 연속 기도회

신앙의 어머니들의 기도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우리는 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들 중에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있지만 밤을 새워가며 불로로 기도하시는 교회의 어머니 권사님들이 계시다.

권사님들이 어떻게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와 나라를 안고 기도한 것은 8년 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보고 모두가 기도하기에 동참한 것이라 고 한다. 그 전에도 교구나 장로회 그리고 집사회에서도 줄곧 기도회가 있었고 권사회에서도 기도 모임들이 많았지만 모두가 동참한 24시간 연속 기도를 한 것은 그때부터라고 한다.

지금 이 24시간 연속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신 권사님들은 대부분의 지무권사님들과 건강이 허락하시는 은퇴권사님들과 원로권사님들로 약 500여명이라고 한다. 이분들은 한 사람당 1시간에서 2시간씩 갈릴리움 뒷편 기도실에서 낮이나 밤이나 이곳으로 나와서 기도

하신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내용은 결코 적지 않다. 우선은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5대 목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하게 이뤄지기를 기도하신다. 또한 각 부서 하나하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역시 잊지 않으신다. 이처럼 많은 것들을 품고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것이다.

정해진 곳에서 24시간 릴레이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집이 먼데 밤중에 기도하러 나와야 하는 권사님들이 계시다. 하지만 이분들은 초저녁부터 교회에 나와 기다리시다가 자신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한 후 교회에 남아 있다가 아침이 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한다.

정말 자신들이 말아야 할 사명이라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며 불로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사님들,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는 권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다. (변주영 기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교회교육 시리즈 4

자녀 교육을 곧 신앙 교육

1. 영혼의 생전
2. 영혼의 생전
3. 교회교육과 사탄의 공격
4. 자녀 교육을 곧 신앙 교육
5. 그날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자녀보다 더 중한 것은 없다. 가만히 앉아 무서로 가슴을 파고드는 그들의 존재를 목상해 보라. 시공을 초월하여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혈연의 질긴 끈은 너무나 우리를 단단하게 결박하고 있다. 우리 인물은 그들로 인해 종생해지기는 가만하 그들 때문에 가슴을 찢는 고통의 시간도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에게 내 삶의 에너지가 다 쏟아부어 서 성정을 기울이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나이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자라게 해주는 상층작용이다. 생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성장 요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이 중단되면 생장은 멈춘다. 인간에게 있어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어미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듯 영의 자녀가 공급자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양분으로 성장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라나야 한다. 이것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명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흔히들 오늘날을 교육 부재의 시대라고 한다. 교육의 모든 깊은 진학으로 통하고 교육을 위한 진학이 아니라 오로지 진학을 위한 교육만이 존재한다. 이 시대의 사람치고 시험 성적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험 기간 중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육이란 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자라게 해주는 상층작용이다. 생모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성장 요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이 중단되면 생장은 멈춘다. 인간에게 있어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어미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듯 영의 자녀가 공급자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양분으로 성장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라나야 한다. 이것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명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인제부터인가 믿음의 사람들도 '진학을 위하여'라는 말 한 마디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일단 보고하는 것은 실정이다. 입시가 끝난다고 신앙 교육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진학시킨 뒤에야 자녀의 신앙 교육의 패를 놓긴 다음에 가슴을 찢는 부모의 의무로 남는다. 일단 입시가 끝나면 보자고 무뎠어 놓았던 신앙 교육,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언젠가까나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선물이다. 그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동안 그들을 돈독한 신앙으로 무장시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 부모들이여! 절대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라.

모든 믿음의 부모나 스승들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패를 아끼기 때문에 성도로 키워내 모라키의 기도를 기억하라. 기도 없는 교육은 불완전하다. 착한 아이들인 문제 있는 아이인 그 모습 그대로의 아이들을 품고 온밀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간다. 자칫 사탄처럼 보이는 욕망에 뿌리 내린 기를 삼켜내 내리 놓고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춘 신앙 교육에 힘을 쏟자. 자녀 교육, 곧 신앙 교육이다. (전집)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학실에 찬 나날을 살아가는

새가족 배움속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자신감과 확신 있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새가족부의 배움속 성도는 지난 3월 교회에 처음 와서 바나나 동물을 했다. 2월 전부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어와 갔다는 생가를 한 그녀는 전부터 자신이 위주지 못하는 찬송가를 골라서 부르는 등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있었다. 특특한 그에게는 아침부터 성경책을 생기기 어떤 일일 있어도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 생활이 바뀌었다. 아침이면 15곡의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전에는 배웠던 형식적인 사람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었다. 그리고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가족은 남편과 유자부, 유년부, 초등부 아내 다는 세 아이 모두 5살이다. 남편은 아직 성당에 다니는 데 골고루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안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다. 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것을 무척 즐겁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 예배도 드렸다고 한다. 현재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생들을 전도하도 다치니 금방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배움속 성도는 앞으로 모든 것이 성령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 단기에 맞게 훈련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박주영 기자)

새가족부 교사, 자녀들과 함께한 배움속 성도



호산나찬양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한 마음으로 정성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최자영(호산나찬양대원)

그년도 호산나찬양대 수련회가 7월 8일 활동하기엔 다없이 좋은 날씨 속에서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연에서 진행되었다.

기도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지하 예배실로 내려간 대원들은 파트별로 정돈해 있어 정돈된 준비에 임했다. 준비 찬송이 있는 후 찬양 위원회 지도 조문한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날의 말씀 주제는 '감사로 세상을 드리기'로 감사로 예배드리라는 자, 감사로 찬송하는 자에 대한 소명의식에 관한 말씀이었다. 조문한 목사님께서는 설교시간 절반 이상을 기도의 시간으로 마련해 주셨으니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각교회를 위하여, 헌법과 병든 자를 위하여, 찬양단원 개개인을 위하여 등등 통성으로 기도 인도하셨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쏟아내는 동안 여기 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진실로 진실로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절절한 기도의 시간이었다.

예배 후 곧바로 진행된 찬송가부르기 대회에는 한여덟의 열기 이상 뜨거웠다. 찬양대원의 기쁜 목소리가 여기고도 볼 수 있었지만 신백한 곡명도 좋았고 모두들 너무 잘 불렀다. 몇몇팀은 여성성도창단으로 직업을 바꾸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그 뒤에 이어 파트별 대항으로 박자맞추기, 성경목욕, 성경구절 암송이 있었다. 조금도 지치 않으려고 열성을 보이는 단원들의 모습은 평소 어진 어머니가 아닌 극성스런 경쟁자들의 표정이었다.



식사 후 휴식도 기질 사이 없이 지휘자 이승준 집사의 큰 짐사의를 사랑할시다'를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찬양대의 계속과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다룬 공개하는

미있는 시간이었다. 끝으로 이승준 집사는 '청중 속에 내 찬양을 바라보며 웃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했다.

특강 후 언급했던 분위기를 바꾸어 곧바로 친교와 율동의 시간이 이어졌고, 수련회를 마치고 사전 촬영이 있을 때 커다란 밀폐용기까지 선물로 받았다.

하루 동안 진행하기엔 모든 일정이 너무 다이나믹한 감이 있었으나 '그만 앞다'고 보았던 느낌이 들기도 했다. 뜻있는 하루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을지가 하고 준비위원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왔다. 예정된 시간 바스에 오르는 대원들의 모습에는 맑고 행복해 보이면서도 진지한 표정이 역력했다. 단 하루 동안의 교육이 될지만 그만 성숙해졌다는 의미도 있었리라.

중년남성중장년 정기연주회 성료

가장 주귀히 빛으로

사랑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진 영감의 찬양

지난 7월 24일 나사렛홀에서는 중년남성중장년의 제3회 정기 연주회가 있었다. 대내에 대해 불구하도 나사렛홀은 꽉 찼다. 그 중에는 소문을 듣고 외부에서 찾아 온 분들도 많았다. 지난 2부까지의 연주회는 교회 밖에서 있었고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인들이 세운 비로 되었다. 이 연주회가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음악에 배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들의 찬양은 먼저 주님께 영광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영혼에 내리는 비가 되어 온 몸이 들어 있던 삶의 불편함을 깨끗이 씻어 내려 주었다. 또 이들의 찬양에는 사랑이 들어 있었다. 마치 신비한 노랫가락에 흘러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멀리멀리 떠나 가는 사람들처럼 나사렛홀에 모인 사람들은 찬양이 이끄는 대로 혼을 맡기고 연주가 끝날 때까지 마냥 흥을 있었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고픈 마음을 가락에 담아서 행상하였을까? 가락에 언어를 달아 올리려는 중장년의 찬양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애절한 바람을 모아 드리는 곡이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깊이 울리는 차고 맑은 목소리였으며 가장 열정적

으로 내뿜는 뜨거운 경배였다. 또 고통을 이루만지는 손길이고 온갖 욕심을 버린 영혼의 정화였다. 또한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종소리였고 주님이 오실 때 울려 퍼지는 천지전동의 나팔소리였다.

그러면 찬양은 왜 교회 사제들이 음악의 짧은 순간만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 뒤에 숨은 길고 긴 시간의 노력까지도 함께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날의 영광된 자리를 위해 이들이 흘린 땀과 기도를 생각해보라. 이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쳐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 가다듬었을까. 이들은 정기적인 연습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이들을 위한 무한한 시간과 있었고 대장인 찬신들 장로님의 든든한 후원과 김윤경 집사의 피나는 노력이 합력하여 이날의 감동을 전하게 되었으리라.

목소리! 목소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믿으신 사랑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찬양의 영감에 부르려 떨리는 혼의 울림을 맛보았다. 그 밤은 찬양의 찬과 찬양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한 교향한 밤이었다. 그 밤은 소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우리처럼 마음껏 찬양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밤이었으리라. (전영희 기자)

지체들 소식 / 나를 바꾼 한마디

지체들 소식

영아부

어린 생명과 부모님이 함께한 은혜의 전지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예수님의 말씀께서 우리 아기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배웠고 눈이 공간의 부족으로 사람부실을 활용하여 넉넉한 교실에서 반별 공부하며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으며 예년에 비해 많은 때와는 달리 편안한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둘째날 크리스천 부모 역할이란 주제로 민경애 집사님의 특강으로 자녀에게 인정을 부모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라는 말씀에 부모는 다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혜경 통신팀)

유아부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25일에는 지난 여름성경학교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또 민 태서, 가까운 내서 오시드라고 수고한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성경 이야기, 만들기, 율동, 인형극, 어머니 특강까지 모두 잘 진행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평가회를 마쳤습니다. 텔레토비처럼 우리 교사들끼리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미은 통신팀)

유년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닮자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나는 이런 것을 여름성경학교에 확실히 배웠다. 전도해 온 온지와 천로역장을 경험했다. '회개'의 방, 침묵의 방 등 여러 가지 방을 보며 그동안 나의 죄를 회개했다. 예배시간에 전도사님은 마귀의 부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나에게도 흑사 마귀의 부하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버릴 것이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조수민 어린이)

에서는 대체적으로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시 오고 싶다는 의견과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야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학생들은 잠자리가 불편하였다는 의견이나 다음부터는 개선해야 될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01미숙 통신팀)



고등부

모두 모두 모여라, 여름수련회!

8월 3-6일에 충원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가 열렸다.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흥회, 율동절 체험, 선택적 강의, 침묵의 시간 등의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수련회 기간에 새로운 형제자매를 알게 될 기회를 주기 위해 친교 시간을 많이 편성할 예정이다. 공부에 치이고 세상에 치여 상처하고 방탕 마음을 이룬 수련회를 통해서 모두 치유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전해지기를 기도한다. 고등부 지체들도 기도서로 준비해 주길 바란다. (김영희 통신팀)

14교구

늘어준 전도 사역 보고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구 전도대원들이 경기도 연천 세마교회로 전도를 다녀왔다. 여름성경학교를 하였고 부흥집회를 가졌다. 처음 시작은 성경학교 어린이 10명, 부흥집회 38명(우리 대동 포함)이 예배를 드렸다. 성경학교 교사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였는데 비가 와서 많이 격정했지만 주님을 믿고 전도해 왔는데 비도 그치게 하시고 다음날에는 21명의 어린이들을 보내 주셨다. 또한 다른 전도팀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축조전도를 했다. 할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빛났던 것이 있어 그것을 다 갖기 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완강히 거절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시며 집회에 나오셨고 그곳 목사님께 교회에 갈 나으셨다고 약속까지 하셨다. 주민들은 대체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둘째날 집회에는 66명이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곳 목사님 내외분께서는

나·를·바·꾼·한·마·디

“세례를 받으라!”

김 동 옥 집사, 고등부 교사, 14교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내 집 마련을 미루셨던 분, 그 어느 누구든 돈을 청하는 사람에게 기쁨없이 배부셨던 분, 세례에 누구와도 다른 일이 없었던 분, 심지어는 주온 겨울 야밤에 집에 든 도둑까지도 밖이 추울수록 코트를 입고 가라고 내어 주셨던 분.

지금 내가 기억하는 나의 장인의 모습이다. 도대체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황당한 분이셨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차라리 부적격자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언제나 하얗게 빛났고 늘 편안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 21년 전 당신 딸과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 찾아 뵈었을 때의 일이다. 잔뜩 간강하고 있던 나에게 그분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다. “결혼 전에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매우 간단한 것 같았던 결혼을 위해 마음의 준비도 없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자괴감이 든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분이 제시한 조건을 나의 자존심 따위로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은 당시의 딸을 놓치서는 안된다는 현실적 필요 이외에 그분의 빛나는 얼굴과 편안한 미소의 이면을 채우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카리스마였다.

그 조건은 만사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당연히 나의 대답은 “순종하겠습니다”였으며 그것은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출발 신호였다. 세속 것들을 좇으며 살아왔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에게서 드려야 받아 주신 순간이었던 것이다. 장인의 그 사랑으로 금방 썩어질 세상 것들을 좇는 대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토 인하여 장인이 지게 되었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다짐해 본다.

도와 줄 전도대원을 보내달라며 1년 전부터 기도해 오셨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감을 돌린다. (이예나 통신팀)



초등부

새 프로그램으로 참여도 높였던 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과 힘들었던 프로그램, 하고 싶은 말들을 보게 하였는데 금요집회에서 찬양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의견이 나왔고 또 세속적 역시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회 이곳 저곳의 시설물과 예배 준비를 위해 사용되던 때도 계절에 맞추어서 해야 하고 매년 똑같은 도 많았지만 또 가장 힘들었던 프로그램으로 뽑혔는데 이유는 게임을 많이 사용하고 여가시간이 많이 이동하여 더운 여름 날씨에 목이 마르고 힘이 들었다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우리들이 성경학교 때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도 계절에 맞추어서 해야 하고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보다 새롭고 학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 중

8월 10-11일 뮤직 캠프 여는 고등부 찬양대

매년 여름 방학 중 1박2일로 이뤄지는 고등부 찬양대 뮤직 캠프가 금년에는 오는 8월 10-11일에 기도원에서 열렸다.

작년의 경우 찬양감독 강임구 집사님께서 특강을 통하여 찬양대원들의 발성을 완전히 바꿀 예정이었다. 한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이론과 실재 발성법의 강의를 계속하는 동안 단 한 명의 탈락자가 없이는 하나님 찬양대원으로서 합당한 실력을 갖추겠다는 일념으로 은혜롭게 소회해낸 캠프였다. 금년에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준비하는 뮤직캠프의 강사는 가르비엘엘안다 지휘자 조진옥 집사님이다.

현재 고등부 찬양대원은 합창단원 99명, 오케스트라 단원 27명, 총 1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원들은 매주 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기도회, 오찬 찬양연습, 분반공부, 고등부 집회, 5부예배 찬양, 오후 찬양연습 등으로 짜여진 일정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다.

이처럼 짜여진 주일 일정 때문에 이를 지켜 보는 어른들께서는 한 안타까워하셨다. 그러나 고등부 슬로건인 '비전 7000, 세상에 부를 줄지 않는 젊은이'에 걸맞은 찬양대로서 영적으로나 음악 실력면에서나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실이 뮤직 캠프를 통해 더욱 내실있게 열매가기를 기대한다.

대원 300명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찬양대의 당면 과제이다. 미지 않은 장래에 이 기도 제목이 이뤄지리라 믿으며, 성도 여러분의 위임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환 교사)



